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4.10.17.(목) 석간	배포	2024.10.16.(수)		
담당부서	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지급여력제도팀	책임자	국 장	이태기	(02-3145-7240)
		담당자	팀 장	박정현	(02-3145-7244)

'24.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*

* 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

1. 현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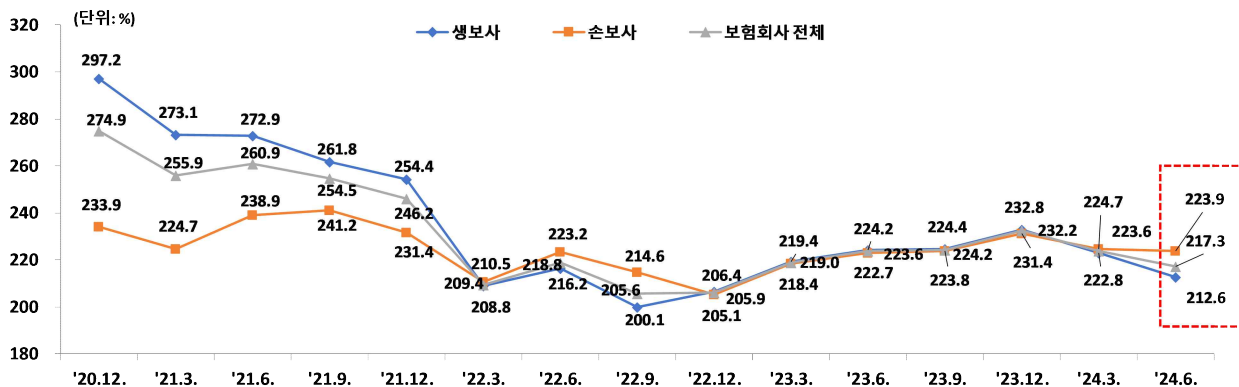
- (경과조치 後) '24.6월말 경과조치*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비율(K-ICS)**은 217.3%로 전분기(223.6%) 대비 6.3%p 하락

* 19개 보험회사(생보 12개사, 손보·재보 7개사)가 경과조치 적용 中

** 지급여력비율 = 가용자본 ÷ 요구자본

- 생보사 212.6%(전분기 比 △10.3%p), 손보사 223.9%(전분기 比 △0.8%p)

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



주) '23.3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後 K-ICS비율

<참 고>

경과조치 적용 前 K-ICS 비율

- (경과조치 前) '24.6월말 경과조치 적용 前 K-ICS비율은 201.5%로 전분기(206.6%) 대비 5.1%p 하락

- 생보사 191.7%(전분기 比 △8.3%p), 손보사 215.6%(전분기 比 △0.5%p)

2.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

◆ '24.6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가용자본이 시장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($\Delta 1.8$ 조원)하고, 요구자본은 증가(+2.6조원)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

□ (가용자본 ↓) '24.6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가용자본은 260.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.8조원 감소

○ '24.2분기 당기손익(+4.5조원) 및 조정준비금*(+4.4조원)이 증가한 반면, 시장금리 하락**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($\Delta 11.9$ 조원)에 기인

* K-ICS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(PAP BS)상 순자산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(SAP BS)상 순자산의 차이 금액

** 국고채10년물 금리: '24.3월말 3.41% → '24.6월말 3.27% ($\Delta 14$ bp)

□ (요구자본 ↑) '24.6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요구자본은 119.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.6조원 증가

○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해·질병위험액 중심으로 생명·장기손보리스크가 증가(+1.3조원)하였고,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 확대 등으로 시장리스크가 증가(+1.5조원)한 것에 기인

<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>

(단위: 조원, %, %p)

구 분	경과조치 前			경과조치 後		
	'24.3월말 (A)	'24.6월말 (B)	증감 (B-A)	'24.3월말 (C)	'24.6월말 (D)	증감 (D-C)
가용자본(조원)	259.5	257.5	$\Delta 1.9$	262.2	260.4	$\Delta 1.8$
요구자본(조원)	125.6	127.8	+2.2	117.2	119.8	+2.6
지급여력비율(% , %p)	206.6	201.5	$\Delta 5.1$	223.6	217.3	$\Delta 6.3$

3. 향후 감독방향

□ '24.6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後 지급여력비율은 217.3%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

○ 다만,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

붙임1
보험회사별 지급여력비율 현황
[생명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4.3월말(A)		'24.6월말(B)		증감주) (B-A)
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
삼성	212.8	-	201.5	-	△11.2
한화	173.1	-	162.8	-	△10.3
교보	175.8	238.9	161.2	214.0	△24.9
농협	214.0	384.0	217.3	373.4	△10.6
흥국	160.4	211.6	156.4	209.3	△2.3
미래에셋	207.2	-	198.0	-	△9.2
신한라이프	241.4	-	235.5	-	△5.9
KDB	44.5	129.2	58.8	155.4	+26.3
DB	197.3	270.8	182.9	237.8	△33.0
KB라이프	303.8	-	299.2	-	△4.5
IBK연금	89.3	194.0	89.9	205.7	+11.7
IM라이프	154.3	236.8	135.1	192.6	△44.1
하나생명	106.0	154.7	111.7	162.8	+8.2
교보플래닛	213.1	282.6	187.1	239.1	△43.4
동양	174.7	-	166.2	-	△8.4
메트라이프	356.3	-	358.9	-	+2.6
ABL	114.3	160.6	104.7	144.5	△16.1
AIA	271.6	-	268.4	-	△3.2
푸본현대	19.0	182.8	10.3	180.8	△2.0
카디프	203.8	-	273.5	-	+69.6
라이나	344.1	-	342.9	-	△1.2
처브	188.9	281.2	168.3	228.6	△52.6
전 체	200.0	222.8	191.7	212.6	△10.3

주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

[손해보험회사]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4.3월말(A)		'24.6월말(B)		증감 ^{주)} (B-A)
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
삼성	280.1	-	278.9	-	△1.2
DB	229.6	-	229.2	-	△0.5
현대해상	166.9	-	169.7	-	+2.8
KB	202.4	-	202.7	-	+0.3
메리츠	226.9	-	224.8	-	△2.1
한화	172.8	211.3	171.7	209.3	△2.0
롯데	146.4	184.0	139.1	173.1	△10.9
흥국	157.0	207.0	151.3	195.4	△11.7
농협	232.3	318.1	223.5	306.6	△11.5
MG	42.7	52.1	36.5	44.4	△7.7
하나손보	129.3	-	160.6	-	+31.2
캐롯손보	234.9	-	206.1	-	△28.8
카카오페이	2,179.7	-	1,171.9	-	△1,007.8
AXA	237.2	275.0	237.5	276.7	+1.7
AIG	247.8	-	252.8	-	+5.0
ACE	302.6	-	305.5	-	+2.9
미쓰이	340.5	-	392.9	-	+52.3
알리안츠	206.1	-	207.5	-	+1.4
신한EZ	401.6	-	343.5	-	△58.1
퍼스트	172.8	-	178.3	-	+5.5
코리안리	181.2	-	186.0	-	+4.9
스위스리	179.4	-	189.1	-	+9.6
SCOR	148.2	164.6	148.8	168.2	+3.5
RGA	200.2	-	200.0	-	△0.2
뮌헨리	253.4	-	278.8	-	+25.4
제네럴리	350.8	-	347.6	-	△3.1
하노버리	191.9	-	194.7	-	+2.8
동경해상	465.0	-	559.6	-	+94.5
퍼시픽리	177.6	-	322.4	-	+144.8
팩토리	437.5	-	433.3	-	△4.2
서울보증	450.1	-	445.4	-	△4.7
전 체	216.1	224.7	215.6	223.9	△0.8

주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

가.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**① 既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(TFI)**

- 제도시행 전 기발행 신종자본증권·후순위채권은 K-ICS기준 상 가용 자본요건 未충족 시에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

② K-ICS 업무보고서 및 공시 기한 연장 : '25.12월말

- K-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
(분기결산 : 3개월 이내, 연결산 : 4개월 이내)

나.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 : 적용기간 최대 10년**③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(TAC)**

-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(가용자본 감소효과)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④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(TIR)

- 신규도입 위험(장수·해지·사업비·대재해위험)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⑤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ER)

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 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⑥ 금리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IRR)

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
※ 경과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23.3.14.(화) 조간 보도자료 '新지급여력제도(K-ICS) 경과 조치 신고 접수결과,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' 참고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